4·15총선 호남의 선택은?

주 필

우선 옛날이야기 하나 듣고 가자. '바리데기'라고 하는 우리 무속 설화다. 오구대왕은 아들이 왕위를 이었으면 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자식도 딸이었다. 칠공주의 막내인 바리데기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리데기가 됐는데 여기에서의 '데기'는 '부엌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다.)

그러나 버려진 바리데기는 어느 노부부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이어 가게 된다. 어느덧 바리공주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오구대왕은 불치병에 걸리고 만다. 서천 서역국의 영약을 먹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대왕의 여섯 딸들은 모두 저승세계인 그곳에 가기를 꺼린다. 이 때 부모를 찾게 된 바리데기가 기꺼이 떠나기로 한다. 그녀는 온갖 고생 끝에 서천의 생명수를 구해 와 부모를 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비례연합정당)이 벌이고 있는 적통(嫡統) 논란을 보며 떠올린 이야기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적자(嫡子)다 서자(庶子)다 하는 말이 있지만 민주당이 어려울 때 언제든 부모를 부양할 마음가짐이 있는 그런 효자다." 어느 여성 의원의 말이다. 아첨을 떨었던 두 딸이 아닌, 효심 깊은 리어왕의 셋째 딸처럼(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자신들이 진짜 효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우린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며 한마디로 일축한다.

'적통 논쟁' 갈수록 가관

마치 21세기판 홍길동전을 보는 듯도 하다. 자식은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데 정작 아버지는 자신을 절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나무란다. 서자였던 홍길동처럼 호부호형(呼父呼兄)을 거부당한 자식은 "선거가 끝나면 디엔에이(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자"고 나온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하다. "더불어 씨, 열린 씨 이렇게 성이 다른데 굳이 그런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급기야 가만히 있는 어느 연예인 집안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임재범과 손지창도 성씨가 다르다"고 올렸다. 가수 임 씨와 배우 손 씨는 고(故) 임택근 전 아나운서의 자제로 이복형제 간이다. 적통을 강조하기 위해 애먼 연예인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성씨가 같은 더불어시민당만을 비례정당으로 인정하고, 이름이 같은 열린민주당과는 가급적 '정신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적자가 됐든 서자가 됐든 나중에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은근히 품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오구대왕의 일곱 번째 딸 바리공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에 비해 '자식'(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 하나뿐이니 적통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노이즈마케팅'이 여간 신경이 쓰는 게 아닌 듯하다. 이런 논란이 언론에 자주오르내리면서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경쟁 구도가 일어나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미래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인데 정확한 지적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35개 정당 중 이들 비례정당이 당당히 4강에 들었다.

전반적인 지역구 판세를 봐도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형세다. 당초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4년차에 치러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당보다 더 밉상인 야당 덕을 본 데다 코로나 역풍까지 불면서 단숨에 전세가 역전됐다. 전남여고 출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공무원 그리고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들이 의도치 않게 정부 여당을 도와준 셈이 됐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확 달라진 분위기를 확인했으나 처음엔 자신들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 차례 다시 여론조사를 돌려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가 한결같게 나오자 그제야 안도하면서 그때부터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야당과의 격차가 그리 크진 않겠지만 제1당만큼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판 변수는 역시 코로나 사태다. 이로 인해 총선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데다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 투표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략 2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무관심을 동반한 '부동층'의 향배가 역대 어느 총선보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느긋한 민주 다급한 민생

그렇다면 지금 호남 지역의 판세는 어디로 기울고 있을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의 절대 우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옛 국민의당에 23석을 내주고 고작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전체 28석 중 25석 이상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민생당 쪽에 현역 의원이 많다는 것인데 , 별로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다. 4년 전 호남에 불었던 국민의당 열풍과 같은 바람은커녕 이번엔 미풍(微風)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민생당 일부 의원조차도 '이낙연 마케팅'에 나설 정도이겠는가.

어찌 됐든 과거 선거에서 호남은 늘 전략적 투표로 일당독재를 견제해 왔다. 너무 오른쪽으로도 너무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절묘하게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제1당(혹은 제1야당)에 표를 몰아주면서도 비례대표만큼은 진보 세력에 어느 정도 표를 분배해 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만약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다면 호남의 국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경험이 일천한 초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호남 정치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선 재선 이상의 민생당 후보에 표를 몰아줄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또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 맘에 걸린다.

아무리 둘러봐도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찾기가 '밀밭에서 포도주 찾는' 격이니 이래저래 고민이다. 그래도 이번에 민생당 의원 중 몇 사람만큼은 살렸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정치9단으로 노마지지(老馬之智)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 장관 이상을 지내 중량감이 있는 후보, 그리고 5·18 진상 규명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던 후보 등. 최소한 이들 서너 명의 의원은 살려줌으로써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견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과연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이번에도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

광주시, 신규 공공일자리 1만2000개 제공

생활방역·민생안정 분야
643억원 투입…3~7개월 단기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생활 방역, 민생안정 분야에서 신규로 공공일자리 1만2000여개를 제공한다. 3~7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43억원을 투입해 23개 사업에 걸쳐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 생활 방역 일자리 사업 대상은 1000여명으로 44억원이 투입된다. 생활 방역(500명), 대중교통 시설 방역(180명), 열감지기 운영(30명), 생활 치료센터 지원(60명),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접수를 돕는 민생경제 지킴이(227)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오는 6월까지 최소 3개월간 일하고 최저 임금(시간당 8590원)을 받는다.

2단계로 민생안정 18개 분야에서는 599억원을 투입해 1만13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도시 환경 정비 등 시가지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아동센터 지원 등으로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된 경우 추가로 일자리를 늘린다. 6~12월 중 진행되며, 사업에 따라 3~7개월간 운영된다.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원된다.

시는 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 제조·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2000명 규모로 추진한다.

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와 기존 시 예산 조정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별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배너를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안내·홍보를 전담토록 하고, 채용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은 공모 접수일 현재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광주시민이어야 하며, 기타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모시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광주시는 지난 3월 8일 이후 한달째 지역감염 사례가 없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후폭풍이 너무도 거세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시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흘째 신규확진 50명 내외 "긍정적"

정부, "통제 범위내로 회복 중… '2차 파도' 대비"

정부는 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한 것과 관련,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제2차 파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일과 7일에 각각 47명, 이날은 5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46일 만이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신천지대구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며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났던 환자 발생 경로도 점차 통제범위 내로 회복되는 중"이라며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들도 6천800명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에 전달할 코로나19 예방 꾸러미

8일 광주 북구 우산동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The드림채움장터)에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꾸러미(손소독제, 면마스크, 비타민, 물티슈 등)를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정규직 직원모집

당사는 소형 농기계 수입, 전국으로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23년 역사의 중견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비 고
경리 보조	• 더존 ERP 사용 가능자 우대
무역 보조	• 영어 독해 필수

홈페이지 참조(www. smtrade.co.kr)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광주시 서구 매월2로 53 26동 101호
☎ 062)603-4836
수입소형농기계전문
(주)에스·엠무역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783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9.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용도지역(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계획(변경)
- 공공청사⑥ 축소 1,185.9㎡ → 360.6㎡(감 825.3㎡)
- 청소년수련시설 신설 825.3㎡
라.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공공청사용지9 축소 1,185.9㎡ → 360.6㎡(감 825.3㎡)
- 청소년수련시설용지2 신설 825.3㎡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청소년수련시설2 신설 등

2.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20. 4. 9. ~ 4. 23.(15일간)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132)
나. 서구청 도시계획과(☎062-360-7464)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는 게재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분할 합병 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주식회사 고려티에스아이(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이네트웍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기 2020년 04월 08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정보통신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0년 04월 09일

"갑" **주식회사 고려티에스아이**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53번길 25(대야동)
대표이사 이 중 석

"을" **주식회사 아이네트웍스**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87, 404호(노대동, 씨티메디컬)
대표이사 정 삼 면

자본감소 및 구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4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700,000,000원 중 금 8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90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170,000주 중 80,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9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또한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케이씨산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13-17 (우산동)
대표이사 임 영 란

산행안내

4월12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4월 12일(일) 전남 신안 자은도 두봉산 & 해사랑길 트래킹 산행, 동광주홈 07:30 대인광장 07:40 염주체 08: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자연보전답사회 4월 12일(일) 용궐산(전북 순창), 염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홈플러스 07: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4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18일(토) 여수 환상의섬 연도 소리도 동백꽃 트래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염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밑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